



부산시설공단 2017 Vol. 75

부산시설공단과 시민이 함께하는

행복도시만들기

공원·교통·상가·장사·문화·체육시설에서
부산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 부산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광안대교 | 영도대교 | 터널 | 공영주차장

시설과 사람들

2017 Vol. 75



부산시설공단

Summer

뜨거운 여름이라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따가운 햇살을 가려주는 구름이 반갑고
늘어진 가로수 그늘에 미소 짓습니다.

차가운 수박 한입이면 세상을 가진 듯하고
시원하게 내리는 소나기에 기분까지 맑아집니다.

이마를 스치는 작은 바람까지 고마운 계절
뜨거운 여름에도 우리에게 참 많은 행복이 있습니다.

CONTENTS



06



14



26



33

발행인 김영수
발행처 부산시설공단 T.1670-8114
홈페이지 www.bisco.or.kr
디자인/인쇄 디자인글꼴 T.051-636-1215

시설과 사람들
2017 VOL.75

04

Special

04 생각의 향기

06 특집 1

부산의 핫플레이스

① 용두산 부산타워

② 태종대 유원지

③ 광안대교

14 특집 2

드론 포토 갤러리

22

Culture

22 인포그래픽

② 부산시민공원

24 힐링 인 부산

무더운 여름, 도심 속에서 더위를 피하는 시원한 Tip

26

Life

26 테마의 창

남포지하도상가 트릭아트 포토존

27 나눔의 창

사랑의 빵 나눔

28 정보의 창

영락공원 · 추모공원 봉안시설 부부합장 시행

32

News

32 공단뉴스

36 부산뉴스

40 부산시설공단 관리시설 MAP

42 공익캠페인

바다로 달려가는 바.람.처.럼.



어디에 숨어 있다가
이제야 달려오는가
함께 있을 땐 잊고 있다가도
멀리 떠나고 나면
다시 그리워지는 바람

처음 듣는 황홀한 음악처럼
나뭇잎을 스쳐가다
내 작은 방
유리창을 두드리는
서늘한 눈매의 바람

여름 내내 끓어오르던
내 마음을 식히며
이제 바람은
흰 옷 입고 문을 여는 내게
박하내음 가득한 언어를
풀어내려 하네

나의 약점까지도 이해하는
오래된 친구처럼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더 넓어지라고 하네

사소한 일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바다로 달려가는 바람처럼
더 맑게, 크게 웃으라고 하네

— 이해인 수녀, 시인

B U S A N T O W E R

용두산 부산타워

새로워진 용두산 부산타워, 오감 만족!!!

미디어 갤러리, VR 망원경, 윈도우 맵핑쇼 ... 생생한 볼거리 가득

부산의 랜드마크이자 추억의 명소인 용두산 부산타워가 멋지게 탈바꿈했다. 지난 7월 1일 44년만에 리모델링 후 재개장한 용두산 부산타워는 부산의 역사, 문화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첨단기술을 도입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 오는 10월 시내면세점까지 임시 개장하면 용두산공원이 볼거리, 먹거리, 살 거리 등이 어우러진 원스톱 종합관광시설의 명성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올해 말까지 용두산 부산타워 외벽에 LED 영상을 비추는 미디어파사드를 구축하고, 에스컬레이터와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등 관광 인프라 시설 개선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새로워진 용두산 부산타워는 부산의 역사적 가치를 담은 중요한 관광지로 외형은 그대로 보존했다. 반면 타워 내부에는 부산의 역사, 명소, 문화 등을 새롭게 해석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공간으로 구성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최신 기술 접목이다. 용두산 부산타워 전망대에서는 세 가지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 우선 가상현실(VR) 망원경이다. 망원경으로 자갈치 시장을 보면 물고기가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또 증강현실(AR)을 적용한 윈도우 맵핑 쇼로 부산의 명소를 체험할 수 있다. N서울타워에서 비추는 실시간 영상을 용두산 부산타워에서도 볼 수 있다. 해발 69미터, 높이 120미터인 타워 전망대에서 부산 전경은 물론 날씨가 좋으면 일본 대마도까지 보인다. 용두산 부산타워 전망대 입구인 1층에는 '부산의 시간'을 재현하는 미디어 갤러리를 설치, 부산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담았다. 1876년 우리나라 최초의 무역항이던 부산항부터 용두산 부산타워를 방문한 관람객의 이미지를 해시태그(#)로 모은 현재까지 시간을 초월한 부산을 소개한다.

전망대는 용두산 부산타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VR 망원경'을 설치해 해운대, 태종대, 광안리, 자갈치시장 등 부산의 대표 명소 정보를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아울러 부산의 실제 야경과 증강현실(AR)을 적용한 '윈도우 맵핑쇼'도 진행한다.





부산의 풍경

BACK TO THE PAST

부산의 옛풍경 속에서 환색의 방에
하나의 색을 가진 내가 주인공이 되어본다.



윈도우 맵핑쇼는 용두산 부산타워의 대표 콘텐츠로 매일 20시 정시부터 15분 간격으로 선보인다. 부산의 야경 위로 불꽃놀이, 풍등 등이 증강현실과 결합한 환상적인 쇼를 감상할 수 있다. 전망대에서 계단을 이용해 한 층 내려가면 N서울타워와 용두산 부산타워를 연결하는 커넥팅 스크린이 있다. N서울타워와 용두산 부산타워를 실시간 연결해 양쪽의 방문객이 같은 제스처를 취하면 타워 내 CJ푸드빌 브랜드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전망대에서 다시 내려오면 용두산 부산타워 2층인 '블랙워더랜드 인 부산' 전시관을 들르게 된다. 이곳에서는 부산을 주제로 한 6가지 테마로 라이트 쇼, 착시 미술 등을 구성해 용두산 부산타워 방문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다.

팔각정은 용두산 부산타워 1층과 2층과 연결돼 있다.

총 세 개 층인 팔각정 1층에는 빙스버거를, 2층과 3층에 투썸플레이스를 운영한다. 빙스버거의 '소프트셀 크랩 버거'는 용두산 부산타워에서만 맛 볼 수 있으며 투썸플레이스는 360도 전망을 관람할 수 있도록 라운드로 좌석을 배치해 독특한 공간을 연출했다. 맑은 날은 남항대교, 부산항대교, 감천문화마을 등이 한 눈에 펼쳐진다.

이용요금 성인 8,000원, 소인(만 2~12세) 6,000원

이용시간 오전 10시~오후 11시

홈페이지 www.busantower.net

글 _ **조진혁** 용두산공원사업소



부 산 영 화 체 험 박 물 관



부산 영화의 '봄'을 맞이하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개관

블록버스터영화의 시각효과기술을 직접 체험 가능

국내 최초의 체험형 영화박물관인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이 지난 7월 4일 용두산공원에서 개관했다. 부산국제영화제(BIFF)의 탄생지라는 점을 감안해 중구에 지었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은 전시보다는 체험을 위주로 하는 국내 최초의 영화체험박물관이다.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인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은 영화의 역사, 크로마키체험, 더빙체험, 타임 슬라이스, 시네마스튜디오 및 VR 영상을 체험할 수 있는 HMD상영관, 거장의 연구실, 영화놀이동산, 어린이 영화마을 등이 준비돼 있어 다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다. 특히 체험 결과물을 본인이 소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관람객들이 추억을 함께 쌓을 수 있는 문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장료 성인 기준 10,000원, 학생 7,000원

부산시민은 30% 할인

홈페이지 busanbom.kr





태종대 유원지

태종대, 해송 · 기암절벽 절경 가득 ...
아름다운 수국축제, 야간 차량 개방

여름이면 더욱 시원하게 부딪치는 파도소리와 함께 멋들어진 절경으로 눈길을 끄는 태종대. 푸르른 해송과 수목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해안에는 깎아 세운듯한 절벽과 기암괴석이 가득하다.

이제 밤에도 차량을 이용해 태종대의 해안 절경을 관람할 수 있다.

태종대 야간 차량 개방은 오후 6시부터 10시, 단, 밤 11시까지의 관람을 마치고 나와야 한다. 허용차량은 승용차와 승차인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이며 입장료는 4,000원이다. 개방 구간은 태종대 유원지 순환도로 4.3km로, 차량을 이용해 태종대 전망대와 등대, 남항 조망지, 태종사 등을 편리하게 갈 수 있다.



태종대 전망대도 새롭게 개장했다. 태종대 앞바다 멀리 수평선이 아스라이 바라보이는 순환도로 서남쪽 끝 부근에 위치한 전망대는 사진찍기 좋은 명소이다. 전망대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고급스런 고객편의시설로 재탄생했다. 부산 대표음식이 한 곳에 모인 푸드코트부터 바다의 절경을 감상하며 브런치를 즐길 수 있는 오션라운지까지 각 층별로 다양한 먹거리들이 준비돼 있다.

태종사 수국축제는 2005년부터 시작돼 해마다 1만여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올해 태종사 수국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은 화사한 수국풍경 인증샷으로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 SNS를 뜨겁게 달구었다. 태종사에는 전 세계에서 수집한 35종의 수국 수천그루가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겨루며 절정을 이룬다. 수국 외에도 석가모니 진신사리와 1983년 스리랑카 국무장관으로부터 선물 받은 보리수, 2010년 그리스 국립박물관장에게 기증받은 올리브나무 등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다양한 볼거리들이 즐비하다.

홈페이지 taejongdae.bisco.or.kr

글 _ 강현기 태종대유원지사업소



T A E J O N G D A E



광안대교

무더위를 잊은 부산 광안대교

화려한 야경 속을 달리는 이색 마라톤 대회



무더위를 잊고 부산 광안대교의 화려한 야경 속을 달리는 이색 마라톤 대회가 오는 8월 5일 열린다.

바로 **‘2017 나이트 레이스 인 부산’** 지난해 나이트 레이스는 1만 2천여 명이 참가하면서 여름밤 부산의 새로운 문화로 부상했다. 자동차만의 다리였던 광안대교가 여름밤 사람들에게 활짝 열리며, 즐거움의 장으로 변화한 것이다. 본격적인 마라토너들만 뛰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때론 연인과 함께, 유모차를 끌고, 친구들과 삼삼오오, 뛰기도 하고 또 쉬엄쉬엄 걸을 수 있다.

특히, 작년에는 광안대교 곳곳에 마련된 퍼포먼스 댄싱, 버스킹 공연이 응원가이자, 눈에 띄는 볼거리이기도 했다. 흥겨운 음악에 몸을 맡기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거대한 물결이 되어 흘러간다. 광안대교 위를 가득 메운 참가자들은 불켜진 광안대교의 거대한 주탑을 배경으로 생

애 최고의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 열심히 사진을 찍기도 한다. 레이스 후에는 일렉트로닉 댄스뮤직(EDM)콘서트가 완주자들을 맞이하는 신나는 뒷풀이도 있다. 완주보다 즐기는 것이 목적인 국내 최초의 ‘나이트레이스 인 부산’은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광안대교를 거쳐 해운대 벅스코까지 7km를 걷는 코스로 멋진 추억을 선사한다. 무더운 열대야는 광안대교 위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닷바람에 어느덧 잊혀지고 흥겨움과 즐거움이 가득한 ‘2017 나이트레이스 인 부산’, 뜨거운 여름밤,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해보자! 광안대교 야경을 즐기며 여름밤을 즐기는 핫스팟! 민락수변공원에는 오늘밤에도 시민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홈페이지 gwanganbridge.bisco.or.kr

글 _ 김강민 교량운영팀



하늘에서 본 풍경 

아름다운 항구도시 부산!

이번 호에는 우리가 항상 접하던 기본 앵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늘높이 드론을 날렸다.
푸른 하늘에서 내려다본 하이 앵글의 시원하고도 멋진 풍경 속에는
항구 도시 부산의 멋과 푸른 숲이 우거진 도심 공원들이ダイナミック하게 가득 담겼다.

#남항대교 #걷는_다리 #영도와_서구를_잇는



#광안대교 #부산의_랜드마크 #축제행사_팔색조 #불꽃축제

#대신공원 #뷰_포인트 #구봉산_엄광산 #봉수대



시민들의
쉼터,
|
초록숲

#부산시민공원 #옛_하야리아 #100년의_기다림 #세계적_명품공원 #16만평



#중앙공원 #충혼탑 #사적테마공원 #부산_한눈에

#어린이대공원 #성지곡수원지 #녹담대 #데크로드

#송상헌광장 #도심속공원 #청년_공간

#부산시민공원 #미로정원 #숨바꼭질 #가족과_함께



#태종대유원지 #무한의_빛 #영도등대



다이나믹한
즐거움이
|
있다



#용두산공원 #부산타워_팔각정 #추억의_공원

#자갈치시장 #저_멀리_용두산공원 #저_멀리_영도대교 #대표_수산시장



부산
품어주는
시원한
바다



#영도대교 #도개교 #오후2시 #도개_이벤트 #부산관광지 #한많은_사연



#태종대유원지 #전망대 #기암절벽 #신선대 #푸른바다

100년의 기다림, 영원한 만남 부산시민공원

5개 주제(기억, 문화, 즐거움, 자연, 참여)로 구성된 부산시민공원.
전체 면적 473,279㎡를 비롯해 축구장 6배(약40,000㎡)의 잔디광장,
97종 총 85만여 그루의 나무가 삶의 여유와 휴식을 제공하며
세계속의 유례없는 새로운 공원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과 국내 관광객은 물론, 나아가 외국인들도 즐겨 찾는
세계적인 명품 공원으로
사랑받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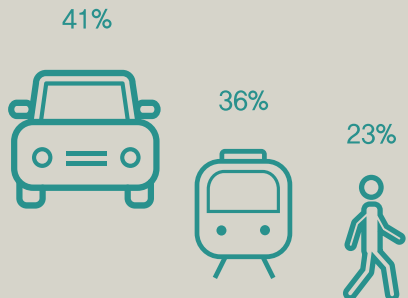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 부산시민공원으로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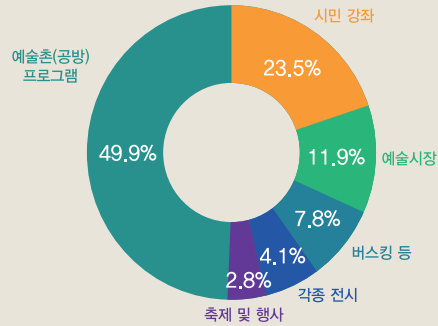
월별 이용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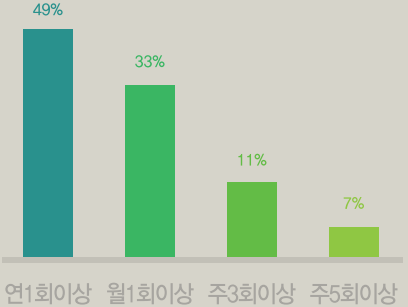
교통수단



프로그램 개최



방문횟수



아이들과 함께 오면 추천하는 코스!



총 3시간(평균) 소요



100년간의 시민공원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 역사관 - 부산의 근대사 교육과 미군부대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 역사공부를 마치면 그냥 마음껏 놀아야죠 - 미로공원에서 친구들과 입구 찾기 놀이도 하고 - 시민공원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4D 체험관, 서클타워, 동물유치원, 자연체험 놀이터, 에어바운스, 물놀이 마당 등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을 즐겨보세요 - 뽀로로 도서관 및 북카페에서 독서타임을 가져보는 것도 강추 - 마지막은 자연이 만든 시원한 그늘에서 낮잠도 자고 대화도 하면서 힐링 휴식을 해봐요~ 공원의 매력은 바로 이맛입니다!

연인끼리는 이 코스 어때요?



총 3시간 30분(평균) 소요



연인이면 가만히 공원 산책만 해도 흐뭇하겠죠~ 그중에서 시원한 폭포도 있고 부부 소나무도 있는 거울 연못은 연인들의 핫플레이스 - TV에서 볼 수 있는 문화예술 체험을 직접 하면서 사랑하는 이와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인형도 만들고 사랑의 증표로 열쇠고리, 커플티 등 다양한 공방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만의 예술작품을 만들어 보셨다면 시민사랑채로 가서서 각종 전시품을 구경해 보세요 - 뭔가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공원역사관으로 가서서 스탬프 투어를 해보세요~

무더운 여름

도심 속에서 더위를 피하는 시원한 Tip

까르르 웃음보 터지는 어린이 피서지로 최고!

저 멀리 산으로, 바다로 가지 않아도 도심 속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최고의 피서지를 소개한다.

바로 부산시민공원과 어린이대공원!

특히 시원하게 솟아오르고 와르르 쏟아지는 물놀이 분수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인기짱! 이다.

부산시민공원 물놀이 바닥분수

+

부산시민공원 물놀이 바닥분수는 알록달록한 각양각색의 분수들이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정신없이 물줄기를 뿜어대며 아이들을 유혹한다. 까르르 웃음보 터진 아이들은 물줄기 사이로 마구 뛰어다니며 숨바꼭질하다가, 잠시 분수가 멈추는 시간에는 바로 옆 인공해변가의 모래사장으로 달려가 모래놀이에 여념이 없다. 어른들은 이렇게 모래사장과 바닥분수를 오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덩달아 즐겁다. 잠시 쉬고 싶을 때에는 파라솔 그늘 아래 돛자리 깔고 여유로운 피크닉을 즐기면 된다.

■ 운영기간 : 5.1 ~ 9.30

■ 운영시간 : 평일(6회) : 10:30, 12:30, 14:30, 16:30, 18:30, 19:30 ※ 5,6,9월 미가동
공휴일, 여름방학기간(10회) : 10:30, 11:30, 12:30, 13:30, 14:30, 15:30, 16:30, 17:30, 18:30, 19:30

■ 가동시간 : 25분

■ 휴 무 일 : 매주 월요일, 우천시

글 _ 심창신 시민공원관리팀



어린이대공원 키드키드파크

+

어린이대공원 키드키드파크는 푸른 숲 속에 시원한 물줄기가 계속 쏟아지는 미끄럼틀과 다양한 놀이터로 구성된 첨봉첨봉 물놀이장으로 인기가 높다.

키드키드(KIDKIDg park)은 즐겁게 웃으며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의성어인 '키득 키득'과 '키드(KID)'를 연결해 담아낸 것으로, 웃음을 참지 못할 만큼 신나는 놀이공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광안대교, 황령산, 오륙도, 등대 등을 콘셉트로 부산을 상징하는 다양한 놀이 조형물을 비롯해 15m 높이의 물로켓 놀이대가 있는 물놀이 존을 갖춘 '키드키드파크'는 무료로 운영된다.



■ 운영기간 : 7.22.~ 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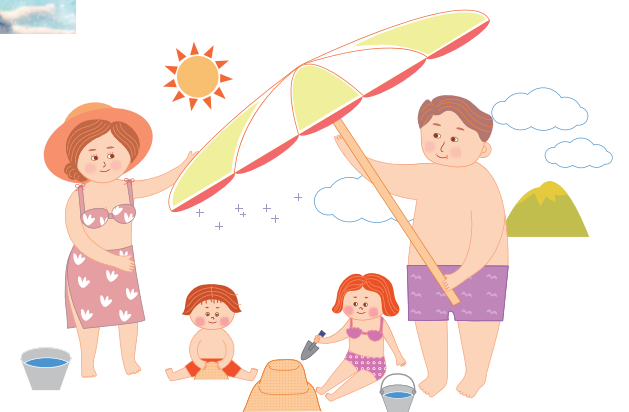
■ 운영시간 : 10:00 ~ 17:00

■ 운영주기 : 50분 가동, 10분 휴식
※ 12:00~13:00 시설점검

■ 휴 무 일 : 매주 월요일, 우천시

글 _ 김순희 어린이대공원사업소

“ 잠시 쉬고 싶을 때에는
파라솔 그늘 아래 돛자리 깔고
여유로운 피크닉을 즐기면 된다. ”



남포지하상가 트릭아트 포토존

남포지하상가에 쵸스가 나타났다!

엄청 큰 바다거북이까지~
재미난 트릭아트 포토존!

+

남포지하상가에 있는 쵸스, 바다거북이 트릭아트 포토존이 이색적인 인증샷 명소로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하상가 쇼핑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기 위해 지난 6월 상가 거리 바닥에 재미난 포토존을 조성한 것. 아찔하게 갈라진 지하바닥 사이로 파고가 넘실거리고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낸 쵸스가 사나운 눈빛으로 먹이감을 찾는 모습을 입체감 있게 그렸다. 하도 생생한 그림이라 발길을 멈춘 쇼핑객들은 용감하게 쵸스의 입 속에 손을 들이밀기도 하고, 절벽 끝에 발끝으로 서서 떨어질듯한 묘기를 선보이며 멋진 인증샷을 남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순하고 멀뚱멀뚱한 눈빛을 한 바다거북이 포토존에서는 모두들 거북이 등딱지 위에 올라타 바다를 가르며 헤엄치는 인생샷을 남기기도 하며 까르르 웃음보를 터트리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포토그래퍼 _ 차유진



사랑의 빵 나눔

재미 두배! 나눔 열배! 노사가 함께하는 맛있는 봉사활동

+

동료들과 함께 재미있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

6월 어느 날, 솔솔 달콤한 향기 가득한, 맛있는 봉사활동을 위해 공단 직원들과 함께 적십자회관에 다녀왔다. 정영노 경영본부장과 최광식 노조위원장을 필두로 40여 명의 참가자 모두 위생 모자, 앞치마 등을 착용하고 모든 준비 완료~ 밀가루 반죽과 팔 소를 앞두고 있으니, 요리가 취미인 신입사원도, 요리를 한번도 해보지 않은 본부장님도 모두들 전문 파티셰가 된 듯하다!

한 사람이 반죽을 자르면 나머지 사람들은 양손으로 반죽을 빚어가며 동글동글~ 작은 공처럼 이쁘게 만들어 나란히 쌓아둔다. 그렇게 빚은 반죽을 다시 고르게 펴서 팔 소를 채운다. 모두들 개성이 다른 것처럼 그 사람이 만든 빵 반죽도 고스란히 개성이 담겨있어, 누가 만들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빵 만들기에 전념한지 3시간, 직접 밀가루 반죽에서부터 숙성, 제조, 포장 등 전 과정을 거쳐 드디어 탄생한 단팃빵과 치즈머핀~ 세상 하나 밖에 없는 소중한 빵이다. 그 소중한 빵을 다시 주변 이웃들에게 나눠 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인지...

비록 모양은 제각각이지만 부산시설공단 직원들이 정성들여 직접 만든 빵이기에 맛은 장담한다며 벅찬 감동에 모두 함께 박수치며 하루를 마무리 했다. 이날



만든 빵 300여개는 부산적십자사를 통해 지역 내 결손가정 어린이 및 아동센터로 전달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참 많다. 우리 공단은 진솔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씩 다가가고자 1년 내내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맛있는 봉사, 행복한 봉사, 따뜻한 봉사로 함께 하는 부산시설공단의 봉사활동은 오래 오래 지속될 것이다.

글 _ 김남우 재무회계팀



이승에서 맺은 부부의 연을

하늘나라에서도
이어가시길



영락공원 · 추모공원 봉안시설 부부합장 시행

공설장사시설 국내 최초 분리형 부부전용 봉안함 개발

공단은 지난 6월 12일부터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장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영락공원 · 추모공원의 봉안시설 이용 시 부부합장을 허용했다.

부부합장이란 하나의 묘지(봉분)에 부부를 동시에 매장하는 것처럼 하나의 화장 뒤 유골을 모시는 봉안시설에도 부부를 동시에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부산지역 공설 봉안시설에는 다양한 세대가 이용하는 가족봉안묘나 부부형 벽식봉안함을 제외하고는 봉안시설 1기에는 한 사람만 모실 수 있었다. 이번에 시행하는 부부합장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첫 번째는 기존 봉안시설에 봉안된 부부 중 한 명의 유골 봉안함에 다른 분의 유골을 합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부산시설공단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분리형 부부 전용 봉안함'을 이용하는 것이다. 분리형 부부 전용 봉안함은 기존 향아리 모양의 유골 봉안함과 달리 직사각형 모양이다. 현재 1인용 유골 봉안단은 폭 25.5cm에 높이 25.5cm여서 유골 봉안함을 넣으면 꽉 찼다. 분리형 부부 전용 봉안함을 사용하면 같은 공간에 2기의 유골 봉안함을 모실 수 있다. 새로운 봉안함 개발을 통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다.

또한 이번 부부합장을 허용으로 별도의 봉안시설을 이용할 때보다 사용료를 50% 줄일 수 있고 사용 기간 연장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선조들을 따로 모신 후손들 입장에서 명절이나 제사 때 봉안시설을 각기 여러 곳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

부부합장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일단 님비(NIMBY) 현상 때문에 봉안시설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장사시설은 대표적인 주민 기피시설로 대체 용지를 마련하기 어렵고 장기간 사업 추진에 따라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현재 부산의 제2 공설 장사시설인 기장군 정관읍의 추모공원(총 10만 기 규모)은 안치율이 53%에 달하고 제1장사시설인 영락공원(총 8만4161기 규모) 안치율은 사실상 100%를 넘었다.

김영수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부부 합장을 활성화하면 현재의 봉안시설 만장 시기를 늦추는 효과가 있고 봉안당 추가 건립 비용 등을 아낄 수 있어 사회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시행취지를 밝혔다.

글 _ 김준형 장사관리팀

부부합장을 하게 되면...



● 먼저 사망하신 분도 배우자의 장사시설 사용기간까지 연장 가능

● 한 분 사용요금으로 두 분 봉안 가능하며, 사용료 절감 가능
예) 한 분이 영락공원 봉안 시설 이용 중 배우자 사망 및 합장 시

구분		A(홍길동)	B(김여사)	A+B
기본15년 기준	봉안일자	2010. 6월	2017. 6월	
	기준일자	2017. 6월	2017. 6월	
	사용기간	7년(2017. 6월)	—	
	잔여기간	8년(2025. 6월)	15년(2032. 6월)	
	사용요금	요금반환 51,970원	요금납부 120,000원	
	비고	A 잔여기간 요금반환, 사용기간 8년 증가		

● 명절 고인 참배를 위해 두 곳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교통 정체 등 시간 및 경제적 비용까지 절감 가능



부부합장 신청 안내

 대상시설 : 봉안당, (개인)벽식봉안담

 허가기준 및 방법 : 법적 부부관계인 자(사실혼 제외)

부부모두 봉안시설 이용 중	한 분이 봉안시설 이용 중 배우자 사망시
- 유족대표 선택 1실 합장 (기존시설 중 선택) - 선택 시설 사용허가 조건 준용 (잔여기간 유지, 사용료 미징수)	- 유족대표 선택 1실 합장 (기존 또는 신규시설 중 선택) - 최근 사망자 사용허가 조건 적용 (신규 사용기간 부여, 사용료 징수)
- 개장(합장) 대상자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 - 부부 전용 분리형 봉안함 활용 1기 봉안시설 내 부부합장 - 허가 후 봉안시설(부부형 벽식봉안담, 가족봉안묘 제외) 이동 불허	

 부부합장 신청 절차 : 기존시설 개장신청 ▶ 부부합장 신청

 개장신청(서류안내)

〈당초 신청자가 동일할 경우〉

- 당초 신청자 : 신분증, 허가증분실신고서·개장신고서(현장비치), 통장사본
- 당초 신청자 부재 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기타 상동
- 당초 신청자 사망 시 : 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후순위 연고자 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
(가족관계나 시안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 후 준비 요망)

〈당초 신청자가 다를 경우〉

- 당초 신청자 별로 각각 상기 절차·서류 등 준용하여 처리

 합장신청(서류안내)

-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신분증

 주의사항

- 합장신청 및 허가 완료시 이후 모든 권리·의무는 우선적으로 합장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가급적 자체분 중 연장자 신청 협조 요망

 부부합장용 유골함 구매·각인신청 : 영락공원 편의점

 부부합장용 위패신청 : 영락원 ⇨ 영락공원 편의점 / 추모공원 ⇨ 추모공원 편의점

문의전화 영락공원 790-5016~7 / 추모공원 790-5170~2

찾아가는 장례상담 서비스

장례서비스 이용 방법, 장례식 절차,
부산 공설장사시설 소개, 질의응답까지!
장례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드립니다.

공단은 지난 6월부터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장례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맞이한 경우, 슬픔에 빠진 유족들에게 장례절차란 아무런 사전 준비없이 맞이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이다.

현재 영락공원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장례상담 서비스」는 장례지도사가 각 단체 및 시설들을 직접 방문하여 장례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준비과정에서부터 실제 장례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행정절차가 필요한지까지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또한 부산 공설장사시설인 영락공원 소개와 다양한 봉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수 이사장은

“누구나 언젠가는 가족, 친지들의 장례식을 경험하지만 평소 죽음을 터부시하는 인식 때문에 정작 필요한 장례 관련 정보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서비스로 인해 시민들이 장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선진장사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글 _ 박대경 장사관리팀

장례에 대한 모든 것,
영락공원 장례지도사가
직접 찾아가 상담해 드립니다.

문의전화 영락공원 790-5096

2017 클린에너지 부산 원년

화물공영차고지, 추모공원...2MW급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연간 7억 친환경전력 생산, CO₂ 1,200t 절감 효과

공단 주요 관리시설인 회동동 화물차 공영차고지와 부산추모공원에 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다. 이 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전기는 100% 한전에 판매할 수 있다.

공단은 더베스티앤씨(주)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올 연말까지 회동동 화물차 공영차고지와 부산추모공원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50억원이 투입될 이번 발전시설은 회동동화물차 차고지 주차장, 사무실과 부산추모공원 옥외주차장, 장모문화관 옥상부 등 부산시 공공기관 부지 30,990㎡에 설치된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2MW 규모로, 연간 3,066MWh 규모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해 연간 1,200t의 CO₂를 절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해, 연간 7억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시도 20년간 부지임대료로 11억원, 기부체납 후에 도 매년 3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 회동동 차고지



추모공원 부지 ▶

교통법규를 지키는 양심, 청렴의 시작입니다!
부산시설공단, 교통안전캠페인 펼쳐

공단은 터널 내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안전 홍보를 위해 지난 5월 24일 황령터널 앞에서 TBN부산교통방송과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공단과 TBN 임직원 50여명이 함께 현수막과 어깨띠를 두르고 시민들의 아침 출근시간에 맞춰 황령터널을 지나가는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홍보했다.

또한 6월 15일에는 해운대경찰서와 합동으로 양 기관 임직원 100여명이 함께 원동IC 사거리에서 선진교통문화 확산 캠페인과 홍보물 배부 활동을 펼쳤다.

공단은 지난 3년간 터널 내 과속경보시스템 및 시인성 증대용 LED유도등 설치, 과속예방을 위한 미끄럼방지 포장 및 횡그루빙 작업 등 다양한 예방 노력을 해왔으며, 황령터널 교통사고율을 38%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청렴 무결점 1000일 달성을 위한 청렴시계 Re-Start 선포식 개최

공단은 지난 7월 12일 공단 5층 대회의실에서 '청렴시계 Re-Start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영수 이사장을 비롯한 간부 임직원 총 50여 명이 참석해, 이사장 재임기간 동안 청렴 무결점 1000일 운동을 전개하고자 반패배 상징성을 가진 청렴시계 제막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선포식에는 부패ZERO 청렴시계를 직원들과 민원인의 주출입로에 설치하여 대·내외적으로 청렴의지를 공표하고 청렴무결점 1000일 달성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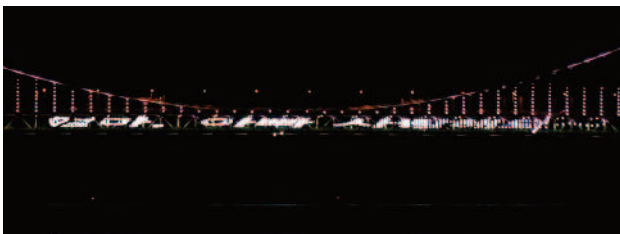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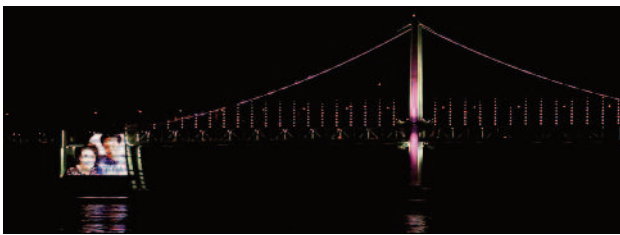
당신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광안대교 러브레터 이벤트

“엄마, 아빠 사랑해요”

공단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광안대교 러브레터 이벤트를 개최했다. 광안대교 야간 조명을 활용해 사랑,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번 이벤트에는 총 300여명의 사연 신청이 들어왔고, 그 중 부모와 자녀, 연인, 스승 등 감동의 메시지 120건을 최종 선정해 5월 10일부터 15일까지 매일 20명의 감동의 메시지를 띄워 보냈다. 신청 메시지는 신청한 사진과 함께 1분 동안 광안대교 현수교 블록과 교각에 나타났다. 광안대교의 조명시설을 이용해 그동안 광고, 각종 행사의 안내 문구 등이 노출된 적은 있지만 이처럼 시민들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혼을 앞둔 어느 신랑의 멋진 프러포즈, 같은 반 친구들과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독순이 수험생, 외국인 여자친구를 위한 깜짝 이벤트 등 행복을 담은 다양한 메시지부터 부모님의 건강을 기원하는 자녀, 군대 간 아들을 그리워하는 엄마 등 아름다운 사랑을 가득 담은 내용까지 가슴 따뜻한 사연들이 광안리 밤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공단은 이번 이벤트에 보내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앞으로 정기적인 이벤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부전몰, 서면몰 서면지하도상가 예쁜 이름으로 새단장

부산의 중심 서면에 위치한 서면지하도상가가 '서면몰, 부전몰'이라는 새 이름으로 출입구 간판을 쾌적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리모델링했다.

도시철도 서면역을 중심으로 부전역 방면으로 위치한 '부전몰'은 중장년층과가족단위 고객이 많이 찾는 특성상 차분한 분위기의 파란색으로, 범내골 방면으로 위치한 '서면몰'은 10~20대 고객의 방문이 가장 많아 활기찬 느낌을 주는 오렌지색으로 정해 상가별 칼라의 특색을 살렸다.

2017 부산 국제친선 여자클럽 핸드볼대회 개최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사직실내체육관

공단은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2017 부산 국제친선 여자클럽 핸드볼대회'를 사직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지역 유일의 여자핸드볼팀을 운영 중인 공단은 부산의 세계화 홍보와 부산시민의 핸드볼에 대한 관심 제고, 국가 간 실업팀 운영에 따른 정보교류 및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목적으로 해외 5개국 우수팀을 초청하였으며, 대회는 리그전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는 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을 비롯해 호주 국가대표팀, 미국 국가대표팀, 대만 국가대표팀, 헝가리 에르드팀(ÉRD), 덴마크 올보르그팀(Aalborg) 등 높은 실력을 갖춘 팀들이 참가한다. 지난 2016년 '부산 국제친선 여자클럽 핸드볼대회'에서는 스포노(SPONO EAGLES, 스위스), 미에(MIE VIOLET IRS, 일본), 산둥(SHANDONG, 중국)팀이 참가했으며, 한국팀(부산시설공단 핸드볼팀)이 전승을 거둬 우승을 차지했다.





P e r f o r m a n c e

다이나믹 부산을 느끼는
하이브리드 한류공연



U n i t E v e n t

구석구석 부산의 매력을 경험하는
융합한류 이벤트



E x h i b i t i o n

부산의 멋과 맛을
한류콘텐츠와 함께 경험하는 전시



Ⅰ 프로그램

01. 공연 Performance

프로그램	일시 · 장소	주요 내용
BOF 개막공연	10.22.(일) 18:00~20:00 아시아드주경기장	- 최고의 K-POP 공연 및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부산 대표 문화 콘텐츠 콜라보 등
BOF Awards (폐막공연)	10.31.(화) 18:00~20:00 영화의전당 야외무대	- BOF Award 시상, K-POP 스타 레드카펫 이벤트, 축하공연
BOF 파크콘서트	10.29.(일) (공연시간 : 20:00~21:30) 부산시민공원	- K-POP에서 트로트까지 다양한 장르의 피크닉형 콘서트 - 다채로운 부대 프로그램 및 플리 마켓 등
BOF 레전드스tage	K-POP 10.24.(화) 20:00~21:30 ROCK&INDIE 10.25.(수) 20:00~21:30 HIPHOP 10.26.(목) 20:00~21:30 EDM 10.27.(금) 20:00~21:30 BOF 랜드(해운대 구남로)	- 케이팝, 락, 힙합, EDM 등 장르별 공연
BOF Jazz & Busking 공연	10.22.(일)~10.31.(화) 11:00~22:00 BOF 랜드(해운대 구남로)	- 부산에서 활동하는 실력있는 재즈팀과 인디밴드의 공연
BOF 팬미팅	10.23.(월)~10.27.(금) 20:00~2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 팬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드는 BOF만의 특별한 스타와의 만남 - 기간 중 총5회
Made In Busan	지역공연육성 7.12(수) 쇼케이스 후 선정 부산시민참여 10.15.(일) / 부산시민공원 부산한류활성화 10.27.(금)	
BOF 쇼케이스	10.22.(일)~10.31.(화)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BOF 랜드, 서면놀이마루, 부산시민공원, 용두산공원 , 영화의전당 등	- 신인 케이팝 그룹 게릴라 공연

02. 부대행사 Unit Event

프로그램	일시 · 장소	주요 내용
BOF 오픈 스튜디오	10.22.(일)~10.31.(화) 16:00~18:00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BOF 랜드, 서면놀이마루, 부산시민공원, 용두산공원 , 영화의전당 등	- 매일 BOF의 현장소식을 BOF 랜드에서 TV 중계 - 라디오 공개방송
BOF 스토어	10.22.(일)~10.31.(화)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BOF 랜드, 서면놀이마루, 부산시민공원, 용두산공원 , 영화의전당 등	- K-POP 스타들의 상품 소개, 판매 - 한류 스타 팬들이 2차 창작물을 제작, 판매하는 팬덤 플리마켓
BOF Cover Dance 대회	10. 28.(토) 18:00~19:30 BOF 랜드 (해운대 구남로)	- K-POP 커버댄스 콘테스트
BOF 오락실	10.22.(일)~10.31.(화) 12:00~22:00 BOF 랜드 (해운대 구남로)	- 보드게임, K-POP 관련 VR, 모바일 콘텐츠, 웹툰, 드로잉소, 캐리커처, 포토존등 체험프로그램
BOF 플랫폼	9. 1.(금)~10.31.(화) 부산전역 및 BOF 주요행사장	- 부산전역 BOF 소개 및 홍보 - BOF GIRLS 홍보팀 운영
Japan Culture Sound in BOF	10.28.(토) 영화의 전당(예정) *민자유치	- 영상 상영회, 성우 겸 싱어 라이브 무대, 아티스트 라이브 무대
BOF 특강	9월~10월 중 부산소재대학교 및 놀이마루	- 스타들이 들려주는 한류 특강

03. 전시 Exhibition

프로그램	일시 · 장소	주요 내용
BOF K-LIFE GROUND	10.27.(금)~10.29.(일) 10:00~20:00 서면 놀이마루 & 서면거리 일대	- 푸드, 뷰티, 패션, 메디컬 등 신한류 트렌드 체험

※일정과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민선 6기 부산시정 3년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좋은 일자리 · 서민복지 ... 더 많이 촘촘하게 위대한 낙동강시대 · 클린에너지 도시 '착착'



‘일자리 창출’ ‘김해신공항’ ‘서부산 개발’ ‘다복동 복지’ ‘클린에너지’..., 민선 6기 부산시정의 핵심 5대 가치(브랜드)이다. 이들 5대 핵심 브랜드는 민선 6기 부산시정의 지난 3년 결실이면서 현재진행형이다.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의 정책 의지를 적극 반영했다.

민선 6기 부산시정이 7월 1일 출범 4년을 시작했다.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비전을 앞세운 민선 6기는 지난 3년간 시민과 함께 글로벌도시 부산 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넓히는데 온 힘을 쏟았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TNT2030플랜 실현으로 86개사에 이르는 역대최고의 기업 유치로 1만2천여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부산의 청년 고용률은 2014년 37.3%에서 올 3월에는 41.5%까지 뛰어올랐다. 2014년 전국 평균과 1.8%p까지 격차가 벌어졌던 청년 고용률은 0.2%p까지 좁혔다. 올 하반기부터는 일자리에 집중했던 청년정책을 금융지원과 주거 안정, 청년활동 보장, 사회복지 등을 두루 아우르며 청년 생활 전반으로 확대한 ‘청년 디딤돌 플랜’을 본격 추진한다. **‘김해신공항 건설’**은 첫 걸음을 내딛었다. 동북아 관문도시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부산시는 안전하고 24시간 운항 가능한 김해신공항을 정부 계획인 2026년보다 1년 앞당겨 개항한다는 목표다.

‘서부산 개발’은 ‘서부산 글로벌시티’ 청사진 완성으로 위대한 낙동강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동서균형발전을 위한 서부산청사, 낙동강하굿둑 개방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민선 6기의 복지 브랜드 **‘다복동’**은 서민층의 복지 그물망이 보다 촘촘해지는데 핵심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민선 6기 부산시정은 고리 1호기 영구 가동정지를 계기로 올해를 **‘클린에너지 부산’** 원년으로 선포했다. 향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30% 확대 등 부산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선도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시민 중심 대중교통 체계 개선 △스마트시티 구현 △2030부산 등록엑스포 본격 추진 △문화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찬 결실을 거뒀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민선 6기 부산시정이 4년째를 맞는 만큼 시민과 약속한 사업과 시정 주요 현안들이 당초 목표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여 살기 좋은,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함께 나누고 싶은 ‘부산 이야기’

시민의 발걸음마다 행복을 창출하는
부산시설공단 관리시설 MAP



- | | |
|------|------|
| 공원시설 | 문화시설 |
| 교통시설 | 상가시설 |
| 장사시설 | 체육시설 |

같이 만들어 가는
가치있는 세상

공익신고



보호

•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보상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지급
•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지원

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신고

• 홈페이지 1398.acrc.go.kr
• 부패·공익신고 앱
•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신고대상 : 5개 분야, 279개 법률 위반행위



건강

불량식품제조·판매
무면허 의료행위



안전

부실시공
소방시설 미설치



환경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소비자 이익

개인정보 무단 유출
허위·과장광고



공정경쟁

기업 간 담합
불법 산업기술 유출



Dynamic
BUSAN



1937
PARIS



2030
BUSAN
WORLD EXPO



1851
LONDON

세계 최대규모의
역사적인 엑스포가
2030년 부산에서
시작됩니다

BUSAN WORLD EXPO 2030